10.15686/fkl.2024..61.167 OPEN ACCESS

전시 동원 체제에서 중국적인 것의 정동화와 조선적인 것의 인종화

-차이나 어펙트 연구

권명아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목차

1 중국 정동과 전파매개적 신체 연구
2 조선적인 것의 중국 지향성과 중국의 정동화
: 배일적 태도와 폐풍의 통제
3 조선의 기운과 공기로서 중국
: 분발심 없는 종족집단과 중국적인 것의 전파매개성
4 중국 정동 연구를 통한 정보 이론, 인종 과학 연구를 위하여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389)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경유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전시 동원 정책을 통해 중국적인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중국 인식, 중국 관련 감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와는 다소 다른 지점에서 중국 정동이라는 문제틀을 설정하였다. 전시 동원 체제에서 중국적인 것은 '일본 국체'를 위협하는 대상, 증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장 강렬한 정동 정치의 목표물이 된다. 중국, 중국인, 중국적인 것은 전시 동원 체제의 증오 정치로 대표되는 정동 정치의 목표(target) 집단, 인구, 장소가 된다. 한편 중국적인 것은 조선이 동등한 '황민'이 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자질, 속성, 기운을 불어넣고, 퍼트리고, 감염시키고, 생성하는 온상이 된다. 중국적인 것은 조선적인 것에 병균처럼 들러붙어 있고, 일본 제국에 대한 반감을 독처럼 퍼트리고, 일본 제국이라는 성스러운 신체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로 비유된다. 중국적인 것은 박멸하려 해도 다시 살아나는 병균이고 숨만 쉬어도 감염되는 바이러스이며, 공기 그 자체이기도 하다. 즉 중국적인 것은 강력한 전파성을 지니며, 병균과 바이러스, 부정적 영향과 사상, 관습, 습속, 자질, 근성을 조선에 실어나르는 매개체이다. 중국적인 것은 이렇게 전파성이 강한 매개체로 간주되고, 기존에 전파성이 강한 매개체들을 통제하던 풍속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전파매개적 신체성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정동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국문핵심어: 중국 인식, 반중 정서, 중국 정동, 배일적 태도, 폐풍, 인종화, 전파매개성, 정보 이론, 중국의 정동화, 조선의 인종화

1 중국 정동과 전파매개적 신체 연구

한국에서 이른바 '반중 정서'가 형성된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점이 구축되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연구를 진행한 정문상은 한국에서 중국 인식에 관한 연구 경향은 근대 초기와 일제 강점기, 냉전기라는 세 국면을 중심으

로 구축되었다고 정리한 바 있다. 정문상에 따르면 “한말/대한제국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근대적 중국 인식이 표출된 계기와 내용이 탐색 되었고” “일제 강점기를 다룬 연구에서는 주로 독립운동가의 중국 인식이 다루어졌으며” “냉전기를 다룬 연구에서는 냉전의 논리에 압도된 중국 인식의 양상이 분석되었다.”[1]

한편 정문상은 한국에서 중국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건 냉전 체제라고 판단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형성하는 중국학 형성이 냉전 체제 이후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에 대한 지식 체계가 미국 주도의 냉전 체제에서 형성되면서 중국 인식은 미국의 지배적 영향에 놓였다고 평가한다. 정문상에 따르면 “한국인의 체계적인 중국 인식의 형성은 냉전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대부분 동시대적 또는 시사적 차원에 머물렀지만, 한국전쟁 이후 각 대학이 복구되고 각종 연구기관과 학회가 조직되면서 그 관심과 연구가 본격화된 사정과 관련이 깊다. 중국 사학계에 한정해 보더라도, 해방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근대적 동양사학의 정초기(定礎期)였다면 1960년대는 그 성장기(成長期)였고 1970년대는 발전기였다는 평가도 있듯이,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인식은 냉전이라는 시대와 밀접히 연관되었던 것이다.”[2]

정문상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다고도 평가한다. 특히 중국 여행이 급증한 것도 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하여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단 여행이라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만 표출되고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면서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강대국 중국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기존의 호의적 태도는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중국 ‘중화주의’에 팽창주의적 혐의까지 물으면서

1 정문상,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 인식의 궤적」, 『한국 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204쪽.

2 정문상, 「中共’과 ‘中國’ 사이에서-1950~1970년대 대중 매체상의 중국 관계 논설을 통해 보는 한국인의 중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3, 동북아역사재단, 2011, 57-58쪽.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던 것이다."라고 논한다.[3] 정문상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냉전 시기 체계적인 지식의 형태로 확립되었고 이 인식이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된 시기가 1990년대라 할 수 있다.

정문상의 연구가 근현대를 가로지르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는 또 다른 '감정'의 문제에 주목한 연구도 활발하다. 반중 정서의 심화에 따른 결과다. 반중 정서 형성의 역사와 역사적 원천을 규명하는 연구들도 축적되었다.[4] 또 일본 제국주의 통치 이념과 증

3 정문상, 「냉전시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 『아시아문화연구』 13,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7, 47-48쪽.

4 예를 들면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는 일본에서 혐한과 혐중 정서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주로 냉전기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초점을 두었다. 히구치 나오토는 일본에서 배외주의를 "국민화 국가(Nationalizing state) vs. 소수민족(National minority) vs. 소수민족의 고국(National homeland)"이라는 3항으로 규명한다. 즉 일본의 혐중 정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과 재일 중국인에 대한 반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혐한 정서 또한 한국에 대한 반감, 재일 조선인에 대한 반감에 영향을 미친다. 히구치 나오토는 일본에서 혐중과 혐한이 하나로 연결된 시기를 2010년대로 본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 체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데 비해, 한국에 대해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호감도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혐중과 혐한은 차이가 있다. 즉 시민적 교류의 유무가 크며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는 젠더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 「일본의 배외주의와 혐한 및 혐중 정서」, 『성균차이나브리프』 10(1), 성균중국연구소, 2022, 108쪽.

그러나 지난 10년간 혐중과 혐한의 차이는 뚜렷해져서 혐중 정서가 재일 중국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도는 줄었지만 혐한 정서는 재일 조선인에게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재일 중국인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와 관련한 배척의 움직임은 한정적이고, 그 이외의 중일 대립의 요소를 포함한 배척의 움직임도 약하다. 반면, 재일 코리안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의해 존재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포스트 콜로니얼 상황에서 생겨난 역사 수정주의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현재로서는 대항 운동이 효과를 발휘하여 배외주의 운동 자체는 수그러들고 있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용인하는 경향마저 있다. 즉 재일 중국인은 중일 관계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데 비해 재일 한국인은 한일 관계 중 특히 역사 문제에 의해 배척의 잠재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간 관계와는 반대로 재일 코리안에 대한 배척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은 재일 중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글, 114쪽.

오 정치의 영향, 일본 제국주의 특유의 반중 정서와 관련한 선행 연구도 진행 중이다.[5] 또 최근에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변화와 반중 정서 확대의 연관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되고 있기도 하다.[6]

이 연구에서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경유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전시 동원 정책을 통해 중국적인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는 극단에 이르고, 특히 조선에서 중국의 영향을 박멸하고자 하는 의지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전시동원 정책을 위해 일본 제국은 중국적인 것뿐 아니라, 조선에 영향을 주는 중국적인 것에 대한 조사, 연구, 통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그 범위는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과 조선의 중국을 향한 지향성이라는 두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조선적인 것과 중국적인 것은 영향과 지향성을 통해 서로를 변형시킨다. 전시 동원 체제에서 중국적인 것은 '일본 국체'를 위협하는 대상, 증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장 강렬한 정동 정치의 목표물이 된다. 중국, 중국인, 중국적인 것은 전시 동원 체제의 증오 정치로 대표되는 정동 정치의 목표(target) 집단, 인구, 장소가 된다.

---

5 관동대지진 당시 중국인 학살에 대한 연구 지형도는 정러징(鄭樂靜), 「관동대지진 중국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모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37-76쪽 참고.

6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샤이닝니키」 한복 논란 및 반중 정서 연구」에서는 샤이닝니키 게임 발매로 촉발된 한복 논란, 특히 유튜브 채널이 생산하고 언론이 유통한 반중 정서를 동북공정 패러디의 연쇄로 보고 있다. 유튜브가 명명한 "겜북 공정"이라는 언표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반중 정서와 한복 논란이 연결되었다. 이 연구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1인 미디어뿐 아니라, 언론, 연구자들이 이러한 반중 정서 확산에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들과 연구자들은 전통문화, 드라마, 게임, 스포츠 등 각종 문화 분야에서 발생하는 한중 양국의 갈등 양상에 대해 '한복 공정', '한글 공정', '김치 공정', '문화 공정', '신동북 공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침탈하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기서 신문과 방송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여 반중 및 혐중 정서를 조성하고, 나아가 '온라인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진선, 김원, 박성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샤이닝니키」 한복 논란 및 반중 정서 연구」, 『中國現代文學』 103,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22, 239쪽.

한편 중국적인 것은 조선이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황민'이 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자질, 속성, 기운을 불어넣고, 퍼트리고, 감염시키고, 생성하는 온상이 된다. 중국적인 것은 조선적인 것에 병균처럼 들러붙어 있고, 일본 제국에 대한 반감을 독처럼 퍼트리고, 일본 제국이라는 성스러운 신체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로 비유된다. 중국적인 것은 박멸하려 해도 다시 살아나는 병균이고 숨만 쉬어도 감염되는 바이러스이며, 공기 그 자체이기도 하다. 즉 중국적인 것은 강력한 전파성을 지니며, 병균과 바이러스, 부정적 영향과 사상, 관습, 습속, 자질, 근성을 조선에 실어나르는 매개체이다. 중국적인 것은 이렇게 전파성이 강한 매개체로 간주되고, 기존에 전파성이 강한 매개체들을 통제하던 풍속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전파매개적 신체성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정동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전파매개적 신체성은 정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 탐구 대상으로 정립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에서는 전파매개적 신체성은 박멸할 존재로 공포의 대상이나 처벌 대상으로만 간주된다.

일본 제국은 조선을 중국의 영향에서 떼놓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식민주의 통치 정책은 특정 집단을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파매개적 신체로, 그 신체들과 연결된 지역을 전파매개의 온상으로 분류하여 배제했다. 전파매개적 신체로 분류된 신체들은 사상을 생산하는 근대적 개인과 달리 개체로서의 특징을 지니지 못했다. 이들은 개체를 특징짓는 윤곽선을 갖지 못한다. 이들의 윤곽선은 외부와 독립적인 신체성을 형성하지 못하여 외부에 침투되기 쉽고, 반대로 이들 신체 자체가 윤곽선이 흐릿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식의 분류 체제는 특정 집단을 보호, 분리, 경계해야 할 개체로 명명하고 할당했다. 풍속 통제는 이를 담당하는 대표적 통치 시스템이다. 여성, 하층 노동자, 미성년, 신체의 윤곽선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들, 신체의 경계가 침투된 이들(이른바 혼혈)은 풍속 통제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풍속 통제의 범위 자체를 넘는 적이 거의 없다.

한편 검열이 정보 통제의 한 방식이고 전시 동원 체제는 정보 전쟁(스파이로 상징되는) 체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검열이란 정보의 생산, 유통, 흐름의 과정, 정보 생산의 행위자성을 조사하고 통제하는 지식, 통제 수단과 과학을 생성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정보 이론과 정동 이

론의 결합을 시도한 이토 마모루는 기존의 정보 이론에서 “정보 과정은 명료한 인식이나 지각의 수준에서 파악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가 명확하게 인식되고 지각되는 수준으로 규정되었다면 명확한 모습을 갖지 않는 무언가, 형태를 갖지 않는 것은 정보가 아닌 것으로 대타적으로 규정된다. 즉 근대적 인식론의 역사에서 정보 이론은 “명확한 모습을 갖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 “말과 관념같이 명료한 ‘형태’를 갖지 않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정보 개념을 구성했다.[7]

정보와 정보 아닌 것의 구별은 명료한 인식과 지각, 이와 반대로 형태를 갖지 않는 것, 무언가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의 차이를 근간으로 한다. 정보의 범위는 인식과 지각의 명료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은 감정과 정동을 정보에서 배제함으로써 형성된다. 이토 마모루는 정보 형성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인지 중심의 정보 이론을 정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토 마모루의 논의에서 정보와 정보 아닌 것의 구별은 흥미롭게도 사상 통제와 풍속 통제의 경계와 겹친다. 물론 이는 사상 통제가 주로 근대 출판물과 지식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고 풍속 통제가 전근대적 유통과 비엘리트의 향유물과 습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사상 통제와 풍속 통제를 전적으로 구별하는 일반적이거나 공식화된 기준은 없다. 다만 두 통제 방식은 통제 대상이 되는 개체, 자연물, 사물, 행위, 장소 등을 특정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사상 통제가 주로 지식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다면 풍속 통제는 이를 제외한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사상 통제는 사상의 생산 주체인 근대적 개인과 그 매체인 인쇄물의 유통 경로를 따라 구축된다면 풍속 통제는 신체적이거나 장소를 매개로 한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통제 대상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분류는 공중과 군중을 구별하는 접촉과 결속 양태의 차이와도 관련된다. 즉 사상 통제가 겨냥하는 대상 집단의 속성은 근대적 개인이나 이들의 연결체로서 공중(le public)의 규정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 풍속 통제 대상은 공중이나 근대적 개인을 구성하기 위한 대타항인 군중(la foule), 즉

7 이토 마모루, 김미정 역, 『정동의 힘: 미디어와 공진하는 신체』, 갈무리, 2016, 60쪽.

"본질적으로 육체의 접촉을 통한 심리적 전염의 무리"[8]라는 분류에 가깝다.

이토 마모루는 타르드의 논의를 재검토하면서 군중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정보 이론을 정동 이론으로 전환시켰다. 즉 정보 범위에서 배제된 "명확한 모습을 갖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 "말과 관념같이 명료한 '형태'를 갖지 않는 것"을 정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류해온 정보 이론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군중의 속성을 설명하는 "명확한 모습을 갖지 않는 무언가", "모든 물질, 생명체, 타자, 그 모든 것들과 접촉하면서 발생하는"[9], "명료한 윤곽을 갖지 않는 생각들"[10]은 현대의 정동 이론에서 논하는 정동과 상통한다고 논한다. 이토 마모루는 정보 이론이 형성된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정보 이론을 정동 이론의 맥락에서 다시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토 마모루의 논의를 일제 강점기 검열에 대응해서 다시 쓰자면, 사상 통제와 풍속 통제를 정보 이론의 형성사로 고찰해야 하며, 이때 정보 이론은 정동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검열 통제를 정보 이론 형성사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동 이론을 거치는 동시에 소수자 이론, 젠더 이론과 비판적 인종주의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상 통제 대상 집단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개별자(개인)이다. 반면 풍속 통제 대상 집단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집단은 개별자와는 달리 무리, 자연, 자연물, 사물(matter)에 가깝다. 근대적 개인은 개별자로서 다른 개체와 구별되고 독립적인 윤곽선(피부)을 지닌다. 반면 풍속 통제 대상 집단은 개인으로서의 윤곽선(피부)을 갖지 않으며 의미

8 타르드는 공중(le public)이 "순수하게 정신적인 공동체이고,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며 심리적으로만 결합된 개인들이 분산된" 것으로 정의한다. 반면 군중(la foule)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접촉을 통합 심리적 전염의 무리"이다. 구스타브 르봉의『군중심리』는 현재까지도 자율적 개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중심에 두고 "도시공간에서 우발적으로 육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동조나 충동적 행동을 하는 군중심리"를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타르드는 신문을 읽는 독서 주체가 자유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면 공중은 충동적이라고 본 이런 관점을 비판하면서 공중이 군중에 비교해서 더욱 등질적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토 마모루, 위의 책, 75-77쪽.

9 이토 마모루, 위의 책, 58쪽.

10 이토 마모루, 위의 책, 59쪽.

를 생산하지 않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통제되어야 할까? 이들은 스스로 정보나 의미를 생산하지 않지만,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전파매개체나 전파매개물이기 때문이다. 경향적으로 여성, 비엘리트 남성, 부랑자, 미성년 등이 풍속 통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점도 이러한 개체에 대한 이해의 산물이다. 즉 이 개체들은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지 않지만,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전파매개체이기에 해롭거나 위험하다. 풍속 통제 대상은 무의미한데 해로운 개체들, 전파매개체로 간주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 개체들은 그 자체로 의미나 정보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지만 전파매개성이 높은 위험한 개체로서 이들은 전향이나 의식화의 대상이라기보다 박멸과 정화의 대상이 된다.

일본 제국의 사상전 강도가 강해질수록 풍속 통제 메커니즘이 비국민 색출의 방법이 되는 것도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깊다. 이 과정에서 중국, 중국인, 중국과 관련한 장소, 문화, 습성은 사상적 원천으로서 사상 통제의 대상에서 무의미하고 해로운 개체들의 온상으로서 풍속 통제의 대상으로 전이되고 변용된다. 일본 제국의 전시 통제 정책에서 이러한 이행을 보이는 대상 집단은 희귀하다. 물론 이 전이와 변용 과정에서 일본 제국의 전시 통제, 조선의 반제국주의적 정치성의 지향, 조선 다중(multitude)의 구체적 행위성들 사이에는 복잡하고 이질적인 불일치와 어긋남이 존재했다. 이런 복잡성은 중국을 둘러싼 표상, 담론, 정동 구조에서도 특이한 형태로 발현된다.

중국적인 것은 사상 통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가 풍속 통제 대상으로 급격하게 변용되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하다.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의 대상이 된 중국인이 주로 하층 노동자라는 점과 학살이 요코하마라는 중국인 하층 노동자 집결지에서 이루어졌던 점도 전파매개적 신체와 그 온상이라는 신체-장소의 연결 방식을 잘 보여준다. 또 중국과의 전쟁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국의 물질적 공간성도 점차 전파매개적 특성으로 변화되고 이행하게 된다. 특히 상해가 "중국의 암종"으로 지목되고 상해에서 조선으로 오는 모든 것이 국체를 오염시키는(스파이) 전파매개체로 변형된다.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 중국적인 것은 윤곽선이 흐릿하고, 오염력이 높으며, 원본 신체를 상실하고 가짜 신체로 이행 중인 것으로 선전되었다.

이런 점에서 전시 동원 체제에서 중국적인 것과 조선적인 것에 대한 통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사 연구자인 브렌튼 J 말린(Brenton J. Malin)의 개념을 빌리자면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우려"의 특정한 역사적 형태다.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우려"는 그 역사가 깊다. 브렌튼 J 말린은 그 역사를 글쓰기 테크놀로지가 출현한 것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근심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크라테스는 그가 선호하는 구두 형태의 의사소통을 글쓰기가 대체할 때 무지한 사람들이 "격앙된 열정"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근심했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이 글쓰기가 마약과 같은 기능을 하여 합리적인 참여와는 별개로 사람들의 몸 깊숙한 곳을 자극한다고 논할 때 역시 이러한 우려의 역사적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 브렌튼 J 말린은 소크라테스가 논한 "격앙된 열정"이나 플라톤이 글쓰기를 "마약과 같다"고 표현한 특정한 감각을 오늘날 마수미나 페트리샤 클라우가 논하는 정동의 하위 지각적(subperceptual) 효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고 논하기도 한다.[11]

브렌튼 J 말린에 따르면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우려", "하위 지각적(subperceptual)" 반응은 역사적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지만, 근대의 전파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와 함께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전기가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서구의 매혹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복잡성은 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인터넷과 같은 전기적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의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두드러진다."[12] 브렌튼 J 말린은 "젠더와 어펙트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숭고함의 수사학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펙트의 "무의식적" 또는 하위 지각적 요소가 종종 누구의 신체가 누구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또 젠더와 어펙트를 기술사(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사)와 결합한다는 건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즉 상호연결성에 대한 역사적 관심의 변화를 밝히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젠더와 어펙트 연구를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한다.[13]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우려"

11 Malin, B, "Mediating gender and affect through history", ed., T. Reeser ed, *Routledge Comapinon to Gender and Affect*, New York; Routledge, 2023, p.258.

12 *ibid*, p.258.

13 *ibid*, p.259.

처럼 특정한 신체와 장소를 전파매개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고, 다른 신체들에 대한 접촉과 감염의 우려가 반복되고 변용되는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젠더·어펙트 이론은 새로운 방향의 논점을 제안하고 있다. 브렌튼 J 말린은 젠더와 어펙트 연구 방법을 통해 "미디어와 기술 역사가들이 기술적 숭고함에 대한 수사학(rhetoric of the technological sublime) 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브렌튼 J 말린은 "기술의 힘에 대한 매혹과 공포"를 연구하는 건 젠더화된 기술 개념에 관한 논의를 풍성하게 만든다. 기술 숭고함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은 종종 경외심과 공포의 복잡한 조합과 대면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기술이 그들의 문화를 변형시키는 것과 마주하면서 경외심과 공포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러한 경외심과 공포는 바로 마주침과 변형의 문제로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14]

이 연구에서는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우려"의 역사를 젠더·어펙트 방법론에 근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일본 제국의 전시동원 정책에서 중국의 정동화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그 역사적 변용 과정을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전파매개적인 것과 앎의 주체로 배치하는 분류학의 역사와 변화로 해석하고자 한다. 중국적인 것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중국적인 것이 가장 고도의 "앎의 주체"의 자리에서 가장 문란하고 병적인 전파매개적 신체의 자리로 단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에서 중국적인 것의 변용 과정과 역사를 살피는 것은 이러한 전파매개적 신체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신체에 대한 분류와 연결성에 대한 반응의 역사를 해석하는 이론화 작업의 하나이다.

전파매개적 신체성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주제의 역사와 이론과 결부된다. 테크놀로지의 역사와 이론, 정보사와 정보 이론, 어펙트에 대한 관념의 역사와 이론, 신체적 접촉과 관련한 젠더사와 이론이 대표적이다. 어펙트 연구가 활발해지고 여러 분야에서 어펙트와 젠더 연구를 통해 해당 학문 분야의 이론 패러다임을 갱신하면서 전파매개적 신체성에 대한 연구는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예를

14 *ibid*, p.259.

들어 『젠더와 어펙트 연구에 대한 라우트리지 총서』[15]에는 영어권 학계의 성과들이 집대성되어 있기도 하다. 또 디지털 테크놀로지, 미디어 기술사, 신체성에 대한 퀴어 이론과 비판적 인종 이론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 기술사와 전파매개적 신체성을 에이즈(AIDS) 공포의 역사를 통해 고찰하는 맥키니와 멀빈의 일련의 연구가 대표적이다.[16] 또 1990년대 에이즈 담론이 당시 급부상한 컴퓨팅 기술, 네트워크 산업과 정보 기술에 따른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사회적 생산 구조에 대한 위기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규명한 「버그들: 컴퓨팅과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에 대한 재고(Bugs: Rethinking the History of Computing, Communication)」는 여러 시사점을 준다. 이 연구에서 맥키니와 멀빈은 에이즈 공포와 바이럴 담론의 역사를 통해서 컴퓨팅과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다시 쓰는 방법을 제시하고, 과학기술과 미디어 이론을 전파매개적 신체성과 어펙트 연구의 맥락에서 재정립한다.[17]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파매개적 신체성은 연구의 대상으로도 간주되지 않고, 여전히 경찰력과 법의 단속 대상으로 치부된다. 전파매개적 신체성은 한국에서는 법적 단속을 위한 개념일 뿐이다.[18]

---

15 T. Reeser et al, ed., T. Reeser , *Routledge Comapinon to Gender and Affect*, New York; Routledge, 2023

16 Cait McKinney and Dylan Mulvin, “High-Touch Media: Caring Practices at the Deaf AIDS Information Center”, *Feminist Media Histories*, Vol. 9, No. 1, 2023, pp. 98-122, 김보영 역, 「하이 터치 미디어: 농인 에이즈 정보 센터에서의 돌봄 실천」, 『젠더스피어』, 이지행 편, 산지니, 2024, 출간 예정.

17 Cait McKinney and Dylan Mulvin, “Bugs: Rethinking the History of Computing, Communication”, *Culture and Critique*, 12(4), December 2019, pp. 476-498.

18 전파매개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나 법 제도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김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처벌의 문제」, 『공익과 인권』 19,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163-200쪽.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법 개정 운동과 전파매개 행위 처벌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토론 자료에 경과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정욜(KNP+) 외 토론, 정리 터울, 「동성애인권운동과 HIV/AIDS」, 웹진, 『친구사이 소식지』, 친구사이, 2015, 04. 1.
https://chingusai.net/xe/index.php?mid=newsletter&category=589629&page=6&document_srl=431715

2 조선적인 것의 중국 지향성과 중국의 정동화 : 배일적 태도와 폐풍의 통제

일본 제국은 식민 지배를 통해 조선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일본으로 대체하기 위해 치밀한 정책을 펼쳤다. 중일전쟁 이후 이런 정책은 더욱 강화된다. 일본의 인종주의적 식민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의 통제,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인 피식민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정동하고(affect) 정동되는(be affected) 복잡하고 치열한 장을 보여준다.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정책이 남진을 기조로 한 '남방 공영권(1941년)'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전쟁을 통한 인종주의 전선(戰線)은 더욱 급변한다. 스스로 일본 제국의 북방 전진기지로 설정했던 조선총독부와 조선의 제국주의 협력 집단은 남진 정책으로 타이완이 부상하면서 제국 내 지위에 대한 불안에 휩싸인다. 새로이 부상한 남방 지역은 이런 불안을 가속하면서 동시에 후발 식민 영토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복합적인 열망을 조선 내부에 촉발하기도 했다.[19]

사상전의 선봉에 섰던 출판 경찰이 중일전쟁 직후 조선 상황을 정리한 아래 자료는 당시 조선에서 중국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역설적인 방식으로 잘 보여준다.[20]

> 이상은 조선 내에서 보통 출판물의 개황인데 앞서 조선인 출판의 일반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지나사변 직전 경에는 그 원고 등의 다수가 **민족주의적인 것**(民族主義的のもの)이 많아서 그중 많은 것이 고려의 명장(名將) 을지문덕(乙支文德) 이조의 명장 이순신(李舜臣) 등에 대한 무훈(武勳)을 **칭양하는**(賞揚した) 이야기나 혹은 조선 고유의 문화나 그 광휘가 빛났던 역사를 내세우고 **상찬하는**(賞讚し) 소위 복고주의를 담은

19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책세상, 2004를 참조.

20 풍속 통제의 역사와 일제시기 풍속 통제의 구체적인 상황은 권명아,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 책세상, 2013을 참조.

것들, 또는 올림픽 대회에서 손(孫) 남(南)[21] 양 선수가 우승한 것을 기회로 삼아 모든 기회를 동원하고 모든 수단 방법에 의해 조선 민족의 우수성을 논하는 등의 경향 또는 족보(族譜) 문집(文集)등에는 **숭명사상**(崇明思想)을 **고취하거나**(鼓吹し) 또는 임진(壬辰)의 침략 또는 일한병합(日韓 併合)의 전후에 있어서 내선(內鮮)관계의 사실(史實)을 호도하여 **비분강개**(悲憤慷慨)를 담아 표현하여 **일본을 배척하는 태도의 자질과 천성을 기르는데 이바지하는**(排日の資に供せんごし) 등의 소설들도 다수 드러났으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나의 지리, 역사, 인정, 풍속을 주제로 하면서 지나를 **예찬하고 동경하도록 만드는**(禮讚憧憬せる) 것들이 대단히 많아 무수한 무지한 대중에게 우리 제국를 **배척하고**(排して) 지나 **숭배**(崇拜)의 사상을 담고 있으므로 당국은 그러한 원고에 대한 검열을 할 때 **가차 없이**(假借なく) 적발하여 통제하여 지도에 임하고 힘쓰고 있다.[22] (강조 인용자)

1937년 이후 조선출판물의 개황을 보고하는 이 출판 경찰 보고서에는 감정과 정서에 대한 서술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 “칭양하는(賞揚した)”, “상찬하는(賞讚し)”, “숭상하는(숭명사상崇明思想)”, “고취하거나(鼓吹し)”, “비분강개(悲憤慷慨)”, “일본을 배척하는 태도의 자질과 천성을 기르는데 이바지하는(排日の資に供せんごし)”, “예찬하고 동경하도록 만드는(禮讚憧憬せる)”, “배척하고(排して)”, “숭배(崇拜)” “가차 없이(假借なく)”와 같이 특정한 감정 상태나 정서를 표현하는 서술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서술어는 조선의 “민족적인 것”의 특성과 연결된다. 즉 이 출판 경찰 보고서에서 1937년 전후 조선의 민족적인 것은 감정과 정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조선의 민족적인 것은 특정한 감정과 정서의 체계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경찰 보고서라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기서 감정 상태와 정서를 표현하는 서술어는 단지 비유나 강조

21 손기정과 남승룡을 뜻함. 인용자 주.

22 『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概要)』, 경무국 도서과(警務局 圖書課), 소화 12년(1937년), 535쪽, 원문 일어, 번역은 인용자,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日帝下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38, 민족문제연구소(民族問題研究所), 한국학술정보, 2000.

를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여기서 감정 상태와 정서를 표현하는 서술어는 조선의 민족적인 것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 조사 행위 결과에 대한 술어로 사용된다. 출판 경찰의 업무인 동향(動向) 파악이라는 용어가 잘 보여주듯이, 출판 경찰 업무는 특정한 사람과 사물의 낱낱의 움직임이나 형세 따위가 움직이는 방향을 추적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감정과 정서의 형세와 움직임을 추적하고 조사하고 통제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 감정과 정서의 형세와 움직임은 특정한 지향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즉 여기서 감정과 정서의 형세와 움직임은 특정 대상을 향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 지향성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설정된다. 여기서 조선의 민족적인 것의 감정 혹은 정서는 특정한 지향성을 보인다. 먼저 조선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지향성이다. 조선에 대한 지향성은 중국에 대한 지향성과 거의 분리되지 않는다. 즉 조선의 민족적인 것은 중국에 대한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대상(조선의 역사와 민족,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지향성은 일본에 대한 특정한 지향성, 즉 배타적 지향성으로 귀결된다.

1937년 상황에서 조선의 민족적인 것은, 특정한 감정과 정서의 체계로 보고된다. 즉 조선적인 것은 민족 감정과 민족 정서와 동일시된다. 또 이 민족 감정과 정서는 과거로 지향되어 있다. 조선적인 것은 민족 감정과 정서의 특정한 체계이며, 이 체계는 과거로 향하는 지향성을 보인다. 즉 "이조", 옛 역사와 이야기, "복고주의", "임진년", "일한병합 시기"라는 과거에 고착되어 있다. 감정이나 정서의 체계로 조선의 민족적인 것을 동일화함으로써 조선적인 것은 주권(sovereignty)의 규정이 아닌 특정한 지향성을 지닌 집단성의 감정 구조로 할당된다. 여기서 조선인은 일차적으로 특정한 지향성을 공유하는 인구 집단으로 규정된다. 즉 조선인은 주권성을 지녔으나 이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 대상이 된 피식민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향성을 공유한 인구 집단이며 그런 점에서 하나의 인종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조선적인 것은 특정한 시간성(과거에 고착된 지향성)에 소속된 종족집단, 감정과 정서 양태에 지배되는 인구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인종화된다. 그리고 이런 인종적 특성은 중국에 귀속되려는 지향성과 혼종되어서 조선적인 것의 고유성은 사실상 흐릿하며 중국에 종속된 특질로 환원된다.

앞에서 살펴본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술어 중 "숭상하는(숭명 사상崇明思

想)”, “고취하거나(鼓吹し)”, “예찬하고 동경하도록 만드는(禮讚憧憬せる)”, “배척하고(排して)”, “숭배(崇拜)”하는 양태는 모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지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즉 조선적인 것은 감정과 정서 양태에 지배되며, 이는 이른바 비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주권성에 반하는 양태를 표시한다. 즉 조선적인 것은 감정과 정서의 양태로 이성에 미달하며 그런 점에서 근대적 주권성에 미달하는 양태로 규정된다. 또 이런 규정에서 조선적인 것은 감정과 정서에 지배되며, 과거에 고착된 지향성은 중국을 향한 강렬한 정서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숭배와 예찬과 동경이라는 술어는 조선적인 것이 중국을 향해 강하게 달라붙는 예속적 상태임을 드러낸다. 즉 1937년 출판 경찰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조선의 민족적인 것에 대한 지향은 중국을 숭배하고 중국에 사대주의적으로 종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민족적인 것에 대한 지향성과 중국에 대한 종속성이라는 특정한 감정과 정서 상태가 바로 조선의 민족 감정이다. 이 조선의 민족 감정은 또 다른 대타항에 의해서도 정의된다. 바로 배일적 태도이다. 조선의 과거에 대한 상찬과 칭양은 일본을 배척하는 자질과 천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 또 중국에 대한 예찬과 동경은 일본 제국을 배척하는 자질과 천성을 키운다. 즉 여기서 조선의 민족적인 것은 특정한 종족 집단의 감정 구조로 재규정된다. 이른바 조선의 민족 감정은 배일 감정의 다른 뜻이자 중국 숭상 그 자체이다.

배일적 태도라는 규정은 전시 동원 체제 정책 보고서에서 항일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940년 검열 표준에서도 “반만 항일 또는 배일을 보여주는 폭동을 칭양하는(賞揚した)” 사항이 중요 표준으로 등장한다.[23] 예를 들어 1941년 79회 제국 의회 설명 자료에서 1940년 말 현재 조선 내의 해외 이입 신문 잡지 통제 현황에서 “항일(抗日)”과 관련해서 “소화 15년 10월에서 동 16년 9월 말까지 외국 간행물의 행정 처분 건수는 1490건”이라고 보고된다.[24]

일찍이 검열 표준에 대해 논의한 정근식은 1926년 검열 기준에서 “배일 사상을 선전하거나 배일 운동을 선동할 우려가 있는 기사”가 검열 표준에 등장하

23 『조선출판경찰개요』, 조선총독부 도서과, 1940, 248쪽.

24 『소화 16년 제국의회 설명자료(昭和 16年 帝國議會 說明 資料)』, 조선총독부, 1941, 112쪽.

는 사례를 규명하였고 그 예시로 3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일본의 조선 통치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 배일적 직접 행동을 선동하는 기사, 일본을 저주하는 기사이다.[25] 이 연구에서는 또 1936년 검열 표준을 대만과 비교하면서 "반만 항일 또는 배일"을 동일한 표준으로 분류하고 있다.[26] 한편 대만과 조선의 금지 표준이 거의 동일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대만에는 없는 규정들이 조선에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국체 문제, 만주의 항일 운동, 납세 문제, 반군 사상, 사법 관련 문제"이다.[27] 여기서도 항일은 만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등장한다. 그러나 정근식의 연구에서는 배일 운동과 항일 운동이라는 규정이 검열 표준에서 어떤 차이를 지니고 등장하는지는 논의되지 않는다. 또 연구 대상이 1936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전시동원 체제의 변화와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한다. 검열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연구 성과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만 검열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다는 통상적 감각에 비해 연구 시기가 주로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한정되어 있고, 사상 통제에 중점을 두고, 통계와 사례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의 중요한 분기점인 전시동원 체제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고 풍속 통제 연구는 아주 소수이며, 검열을 연구하는 방법 또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라기보다 후속 연구가 필요한 지점일 뿐이다.[28]

전시 동원 체제에서 배일적 태도로서 조선의 민족 감정은 중국 지향성과 특별한 관련을 맺으며 이러한 방식의 조선의 민족 감정에 관한 규정은 전시 동원 체제의 고유한 통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전시 동원 체제에서 중국적인 것의 특유한 변용과도 관련이 깊다. 1937년 이후 조선의 출판물 상황에 대한 통제

25 정근식,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대동문화연구』 79, 대동문화연구원, 2012, 17쪽.

26 위의 글, 31쪽.

27 정근식, 앞의 글, 32쪽.

28 문한별은 『경무휘보』를 사례로 전시동원 체제 검열 표준의 차이를 고찰했다. 다만 자의성을 강조하다보니 전시 동원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문한별,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화 검열 표준과 특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4(1), 한국근대문학회, 2023, 173-199쪽.

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조선의 옛것'에 대한 통제이다. 중국은 반일 투쟁의 거점이었기에 중국 관련 동향을 담은 정보물은 모두 사상 통제 대상이었다. 이와 달리 풍속 통제에서는 사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거의 모든 영역, 특히 심성 구조, 취향, 감수성을 비롯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풍속 통제 대상으로 포획되었다.

전시 동원 체제로 접어들면서 족보나 문집은 풍속 통제 단속에 양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족보를 '숭명 사상'의 원천으로 풍속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풍속 통제가 사상 통제와 어떻게 다른 원리를 지니는지 잘 보여준다. 최근 연구에서는 족보와 문집에 대한 통제를 "총독부 출판 정책이 지닌 의도성, 즉 검열 체계화 초기에는 출판 시장에 대한 유화책으로 지방 유학자들이나 전근대적인 대중 소설류를 출판 허가해준 것이며, 이후에는 그마저도 명분을 앞세워 출판을 불허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29] 문한별과 김정화의 연구는 『조선 출판 경찰 월보』만을 대상으로 삼아, 주

29 김정화·문한별, 「『조선 출판 경찰 월보』 출판검열 통계표에 드러난 출판 시장의 변동과 통제 양상」, 『우리어문연구』 68, 우리어문학회, 2020, 60-61쪽.
『조선 출판 경찰 월보』에 대한 통계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헌호, 손성준,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조선 출판 경찰 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 38, 외국문학연구소, 2010, 193-224쪽; 이혜령,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제국" 표상-『조선 출판 경찰 월보』의 다섯 가지 통계표가 말해주는 것」, 『대동문화연구』 72, 대동문화연구원, 2010, 489-553쪽.
『조선 출판 경찰 월보』에 대한 통계 기반 검열 연구의 경향을 이어받으면서 '지나' 범주가 도입되는 과정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류진희, 「식민지 검열장의 형성과 그 안의 밖-『朝鮮出版警察月報』에 있어 '支那'라는 메타 범주」, 『대동문화연구』 72, 대동문화연구원, 2010, 415-443쪽. 류진희의 연구는 지나의 범주를 "식민지 조선인의 역능"과 관련해 분석하고 있다. 문한별과 마찬가지로 출판물 관련 통계 중심 연구이며, 시기 역시 1928년에서 1938년까지로 국한되어서 전시 동원 체제가 본격화한 1939년 이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조선 출판 경찰 월보』를 대상으로 중국 작가 장광자의 소설 「압록강에서」의 검열 사례를 연구한 논의로는 엄진주,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중국 소설 검열 연구-蔣光慈 소설 〈압록강에서(鴨綠江上〉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61, 한중인문학회 2018, 53-75쪽. 엄진주는 『조선 출판 경찰 월보』를 통해 1930년대 중국 소설 검열에 대해 살펴본바 "〈압록강에서〉와 같은 강한 반일 사상을 띤 해외 소설을 들여와 독자에서 선

로 통계에 의존한 연구로, 주로 통계 기반 검열 연구를 수행한 연구를 참조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시기가 1928년에서 1938년까지로 국한되어서 전시 동원 체제가 본격화한 1939년 이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족보 발간은 그 자체로 반식민주의적인 정치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조선의 반식민주의 운동이 족보를 거점으로 삼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일본 제국의 전시 동원 통제 정책에서는 족보 발간 자체를 배일적 태도로 간주했다. 전시 동원 체제 들어 출판 경찰은 근대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근대적 출판 형식이 아닌 형태로 유통되는 서적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족보와 문집, 조선의 옛이야기가 대표적이다.[30] 마찬가지로 삼국지나 옛이야기(조웅전, 심청전, 춘향전 등)를 읽고 돌려보는 일도 그 자체로 반제국주의적 정치성을 지니지 않으며,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전근대적이어서 조선의 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일본 제국의 전시 동원 통제에서는 옛이야기를 읽고 돌려보는 행위를 배일적 태도로 간주하였다. 중국을 흠모하고 선망하는 게 반제국주의 정치성을 지니는 게 아니지만, 일본 제국의 전시 통제에서는 중국을 선망하는 모든 행위를 배일적 태도로 간주하였다.

3 조선의 기운과 공기로서 중국 : 분발심 없는 종족집단과 중국적인 것의 전파매개성

보이고자 했던 당시 문단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 연구 역시 1930년대 중반까지를 다루고 있고, 사회주의 문학 수용과 반일 사상에 대한 사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38년 이후 반일 사상에 대한 사상 통제와 함께 이른바 "배일(排日)적 태도와 정서"가 풍속 통제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한다. 『조선 출판 경찰 월보』를 사례로 여러 해에 걸쳐 진행 중인 통계 중심의 검열에 관한 집단 연구의 성과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출판 경찰 월보』를 중심으로 한 집단 연구는 전시 동원 체제 통제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주로 사상 통제에 집중하여 풍속 통제 연구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일제 강점기 검열 연구에 이러한 집단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 또한 그러한 선행 연구를 이어받으면서 전시 동원 체제에서 통제 방식과 증오 정치의 변화, 풍속 통제의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0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자세하게 규명한 바 있다. 권명아, 앞의 책 참조.

1943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오오노 켄이치는(大野謙一) 경성제국대학 강당에서 학도지원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의 제목은『교육으로 본 조선의 장래(教育より見たる朝鮮の將來)』이다. 강연은 몇 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그 중 한 주제가「소중화 사상을 버리고 자주 창조의 기풍을 배양하고, 크게 욕망의 한도를 높이자」이다. 이 강연은 같은 제목의 책자로 발간되었다.[31]

오오노 켄이치(1897~1968년)는 1897년생으로 1921년 고등고시에 합격, 이듬해 6월에 조선총독부 소속이 되어서 같은 해 9월에 강원도 학무과장으로 발령받는다. 1923년 11월에는 강원도지방과장, 1924년에는 평안남도 지방과장, 1926년 조선총독부 식산국 수리과장, 1927년 황해도 재무과장, 1929년 충청북도 경찰부장을 같은 해 11월에는 경상북도 경찰부장을 역임했다. 1933년 1월부터는 조선총독부 사무관으로 부임,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장에 취임했다. 이후 경상남도 내무부장, 조선총독부 북경출장소장, 조선총독부 관방외무부장을 거쳐서 1940년 3월에는 함경북도 지사를 거쳐서 1942년 11월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취임해서 1944년 퇴임했다.[32]

오오노 켄이치는 강연에서 조선의 제도 등 모든 면이 고대(古代)에 고착되어 있고 그 원인은 조선인들의 몸과 마음에 각인된 소중화 의식 때문이라고 논한다.

> 조선에는 오래전부터 소중화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내지에서는 고슈 사람들(甲州人)이 甲府(고후)를 소에도(小江戶)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이와 큰 차이가 있다. 조선에서 소중화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작은 중국

31 오오노 켄이치(大野謙一),『교육으로 본 조선의 장래(教育より見たる朝鮮の將來)』, 조선총독부 학무국장(朝鮮總督府 學務局長), 1943, 이 자료는 "경성제국대학 강당에서 학도지원병에 대해 진행한 강연 필기"이다.『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39권, 민족문제연구소(民族問題硏究所), 한국학술정보, 2000, 21-30쪽.

32 오오노 켄이치의 경력은「식민지 관료 경력도(植民地官僚経歷図)」,『공문서로 본「외지」와「내지」-구식민지·점령지를 둘러싼 인적 환류(公文書に見る「外地」と「內地」-旧植民地·占領地をめぐる人的還流)』, 인터넷 아카이브 참조.
https://www.jacar.go.jp/glossary/gaichitonaichi/career/career.html?data=247
(최종검색일: 2024년 3월 15일.)

이라고 여기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겨 지나의 축도판이 되는 것을 최대로 여기는 등등 자주성을 결여하고 만사 사대 추종과 보수 퇴영적인 방식이다.(…)

조선의 유교(儒家)가 각 시대에서 사회질서를 비교적 평온하게 유지했다는 공적도 물론 인정해야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항상 시대의 공기를 침잠시키는 폐쇄의 기운에 빠트린 죄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33]

오오노 켄이치는 조선의 소중화 의식이 중국을 진짜로, 조선을 작은 중국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자주성을 결여하고 만사 사대 추종과 보수 퇴영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앞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 문화나 유교적 풍토는 조선의 폐풍, 즉 "숭명 사상"의 대표적 사례로 반복되어 논의된다. 반면 "유교나 불교는 물론 처음에는 조선에서 내지로 전해졌으나 일본 내지에서는 점차 발전하여 국민도덕 향상을 이끄는 무사도로 발전했다."고 조선과 중국의 유교와 불교 문화와 일본의 유교와 불교 문화를 분리해서 설명한다.[34]

오오노 켄이치의 논의에서도 중국과 조선의 연결은 "기운"이나 "공기"로 설명된다. 즉 중국과 조선은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고,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는 하위 지각적인 것으로서 정동의 개념과도 상통한다. 또한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런 방식은 브랜튼 J 말린이 논한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우려"[35]의 역사적 사례로도 논할만하다. "한 신체가 다른 신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우려"는 서로 다른 신체들 사이의 연결과 연결 기술에 대한 숭고와 공포로 반복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체들 사이의 연결성, 매개성, 전파성의 문제로 특히나 근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브렌튼 J 말린은 기존에 미디어 역사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사, 정보 이론 등에서 이 문제가 주로 다뤄졌으나 이러한 우려의 숭배 구조를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펙트 이론

33 오오노 켄이치(大野謙一), 위의 책, 20쪽.

34 오오노 켄이치(大野謙一), 위의 책, 21쪽.

35 Malin, B, op.cit, p. 259.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브렌튼 J 말린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사와 미디어 역사 연구의 문제설정을 어펙트 이론을 통해 다시 쓰듯이, 이 연구는 조선과 중국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의 문제설정을 어펙트 이론을 통해 다시 쓰고자 한다.

오오노 켄이치는 소중화 의식의 문제를 지적한 선행 논의로 후쿠다 도쿠조의 조사 연구를 사례로 길게 설명한다.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 1874~1930)는 '조선 정체성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사학자인 백남운의 스승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백남운 연구를 통해서 후쿠다 도쿠조의 조선 정체성론과 당대 마르크스주의의 아시아적 정체성론에 대한 비판이 이뤄져왔다. 후쿠다 도쿠조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인 우대형에 따르면 "백남운의 동경상대 유학 시절 스승이었던 후쿠다는 러일전쟁 직전 조선을 방문한 후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를 발표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경제사를 다룬 최초의 학술 논문으로 기록되는 이 논문의 내용은 잘 알려진 대로, 20세기 초 한국의 수준은 일본의 9~10세기에 해당될 정도로 정체되어 있어 이를 벗어나는 길은 문명국 일본에 동화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글이다. 후쿠다는 한국이 이처럼 정체된 이유를 봉건제의 경험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덧붙였다."[36]

>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 박사는 메이지 34년경 조선을 시찰했다. 그 결과 당시 조선의 사회 기구가 내지의 왕조 시대 즉 나라, 헤이안 시대의 사회 기구와 비슷한 정도의 경제 발달 정도로 우리의 왕조시대가 조선에서 새삼 회상할 정도라는 걸 발견했다. (…) 나는 학생 시대에 후쿠다 도쿠조의 연설을 들은 후 조선에 와서 강원도에 부임하여 여러 빈궁 부락을 보고, 야마우에노 오쿠라(山上憶良)의 걸작 「빈궁문답(貧窮問答)」의 노래를 읽고 이 후쿠다 도쿠조 박사의 관찰과 사상을 아울러 생각하

36 우대형, 「일제하 사회경제사학과 白南雲」,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10, 한국사회사학회, 2016, 43-44쪽. 이 글에서는 조선 정체성론이 중국과의 전쟁 국면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조선의 "폐풍"으로 재구성되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니 감개가 깊어졌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37]

오오노 켄이치가 조선의 소중화 의식과 아시아적 정체성을 논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례는 흥미롭다. 후쿠다 도쿠조의 연구와 연설을 들었던 경험과 조선에 부임하여 강원도의 빈궁 부락을 직접 관찰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마우에노 오쿠라 (山上憶良)의 걸작 「빈궁문답(貧窮問答)」을 읽고 조선과 중국의 빈궁함을 다시 한탄하고 후쿠다 도쿠조의 사상에 다시금 감동했다고 이야기한다. 야마우에노 오쿠라는 701년 중국에 견당사로 파견된 인물이다. 특히 「빈궁문답」이 한중일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빈궁 양상을 노래한 것인지, 중국의 빈궁함을 노래한 것인지에도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체로 『빈궁문답』은 작품 자체도 중국의 영향이 강하고 일본보다는 고대 중국의 빈궁함을 노래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38] 김성봉에 따르면 선행 연구에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혹한 세금과 노역에 시달리는 백성을 위해 『빈궁문답가(貧窮問答歌)』를 창작하였다고 해도 묘사된 풍토는 일본이 아니라고 본다."[39] 오오노 켄이치는 고대 중국을 노래한 『빈궁문답가』를 1930년대 조선의 강원도의 현실에 대입시켜 조선과 중국을 고대에 고착된 사회로 논하며 후쿠다 도쿠조의 논의를 생생하게 만든다.

이어서 중국과 조선이 고대라는 시간성에 고착되었다는 점을 19세기 중국을 여행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여행기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1942년이 영국과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생각할 때 학도지원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적국인 영국의 선교사의 여행기를 사례로 드는 것은 흥미롭다. 중국의 시대착오적인 야만성과 낙후성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적대국인 영국의 시선을 차용하는 것

37 오오노 켄이치(大野謙一), 앞의 책, 23쪽.

38 김성봉에 따르면 "야마우에노 오쿠라는 701년 제 7차 견당사(遣唐使)로 임명되었다." "702년 제 7차 견당사로 배를 타고 당나라에 간 후, 임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어디를 경유해서 언제 귀국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726년 67세에 축전국수(筑前国守)로 부임한 후 대재부(大宰府)의 장관인 대반려인(大伴旅人)과 함께 많은 노래를 만들고, 732년 축전국수(筑前国守)를 퇴임하고 나서 귀경한 후에 그해 겨울에 제작한 노래가 「빈궁문답가(貧窮問答歌)」이다.", 김성봉, 「山上憶良의 貧窮問答歌論」, 『일본어문학』 72, 일본어문학회, 2016. 이 노래는 특히 중국 작품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9 위의 글, 207쪽.

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는 흥미롭다. 동시에 이런 차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은 조선에서 중국의 영향(소중화 의식)을 바라보는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적 시선이 19세기 유럽 백인들의 인종화된 제국주의적 시선과 모순 없이 동일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대동아를 꿈꾸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백인의 시선에서 아시아의 낙후성을 논하는 방식에서 전혀 모순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특히 후쿠다 도쿠조가 조선 시찰 전에 구주에서 돌아오면서 시베리아를 경유해서 시베리아의 조선인의 상태도 시찰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선과 중국의 고대적인 퇴보와 고착 상태는 "일청 전쟁 전후 시베리아에 이주한 조선인의 발전 향상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실증이 된다"고도 논한다. 또 조선인의 낙후성과 빈궁함은 "메이지 30년경 연해주를 여행했던 비숍 부인(Isabella Bird Bishop)이 써서 『더 코리안 레포지토리(The Korean Repository)[40]에 게재한 여행기에 잘 드러난다고 이어서 논한다.[41]

오오노 켄이치는 학도지원병 격려 연설을 듣고 있는 조선의 청년을 직접 호명하면서, 후쿠다 도쿠조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시찰 기록을 보면서 공통으로 "근대에서 조선의 궁핍 특히 주택의 왜소함, 산업이 위축되고 침체한 점을 보여주는 생산의 전무함에 의해 산하가 황폐해져 버린 점 등 그 원인을 이조 오백 년의 잘못된 정치(秕政)에서 찾고 있는 점"이 연설을 듣는 청년들에게 큰 깨달음을

40 1892년 1월 미국 북감리교 한국선교부는 배재학당에서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를 창간하였다. 관련해서는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1892~1898)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60, 한국학연구소, 2021, 9-35쪽.

41 이 시기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조선과 중국을 방문한 후 여행기를 남겼다.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인화 번역, 살림, 1996)과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이사발레 버드 비숍 지음, 김태성·박종숙 역, 효형 출판사, 2005년.)가 번역되었다. 비숍의 여행기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글쓰기로 해석되기도 하며, 서구 백인의 시각과 여성으로서의 시각의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중국과 조선의 여성에 대한 시각은 전형적인 백인 제국주의의 시선을 보여준다. 조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정심을 표명했다면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감과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숍의 중국 여행기에 대해서는 이용재,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중국여행기와 제국주의적 글쓰기」, 『중국어문논역총간』 30, 중국어문논역학회, 2012, 353-388쪽.

줄 것이라고 논한다. 또 "거기서 나 스스로는 제군과 함께 일한 병합 후에 우리들이 조선에서 걸어왔던 길을 조용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논한다.[42]

학도지원병 동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으로서 오오노 켄이치의 연설에서는 시종일관 일찍이 문명 개화한 일본의 선도적 지위, 서구 제국주의와 대등한 관계를 지니는 일본 제국의 위상이 강조된다. 또 서구 제국주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일본 제국의 위치는 고대 시대에 고착된 중국과 대비되고, 조선은 작은 중국일 뿐이므로 중국보다도 더 하위의 위계에 할당된다. 그러나 조선인도 일본의 영도하에 일찍이 시베리아로 이주한 이들이 고대적 정체에서 벗어나 문명개화 하였던 사례처럼 조선의 학도 역시 지금 도태된 조선의 종족 집단에서 벗어나 다른 위계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물론 이는 전시 강제 동원을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로 전도하는 논리의 전형이기도 하다. 이는 학도지원병 대상이 된 청년 청중과 노무 동원의 대상이 "반도 대중"을 위계화해서 비판하는 논지에서도 드러난다. 또 이때 "반도 대중"은 가장 '지나적인' 생활 방식을 체현한 존재로 그려진다. 즉 오오노 켄이치는 학도 지원병 청중을 대상으로 소중화 의식에 빠진 조선의 도태한 현실을 한탄한다. 이런 한탄은 후쿠다 도쿠조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일본의 고대 시인 야마우에노 오쿠라 등의 학문적 논거를 들면서 하나의 특유의 논리를 만든다. 또 이들의 공통된 조사 연구의 결과는 중국과 조선이 고대 사회 체제에 고착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런 고착으로 인해 중국인과 조선인은 모두 "욕망의 한도가 극도로 최저한도 수준에 고착되어 있고" 이런 연유로 "분발심을 품는 것조차 억압된다." 그리고 이런 작은 중국으로서 조선의 문제를 가장 잘 체현한 집단은 조선의 노동자 대중이다.

> 함경북도에서 유연탄 탄광 노동자에 관해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로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광산에서 성적 우수한 노무자에게 특별히 임시로 급여를 올려주었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일하는 날이 감소했더라는 아연한 결과가 나왔다. 즉 예를 들어 급여를 올려주기 전에는 하루당

42 오오노 켄이치(大野謙一), 앞의 책, 24쪽.

3원이면 월에 이십오일을 근무했던 자가 삼 원 오십 전으로 급여를 올렸더니 한 달에 22일만 일하더라는 것이다. (…)

반도 대중의 근로관이 이러해서는 군무(軍務)나 노무(勞務)에서나 금일과 같은 전시 동원과 같은 동원의 시대에도 의연하게 놀고먹는(遊衣徒食) 무리들(輩)이 도시에도 농촌에도 있어 농업생산뿐 아니라, 공장, 광산 등에서는 노무의 공급의 부족을 염려하고 있다. **제군은 이러한 사태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후쿠다 박사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공명하는 바이다. 즉 반도 대중의 욕망의 한도가 극도로 낮은 수준에 고착되어서 그 환경이 분발심(奮發心)을 품는 것마저 억압하고 있는 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43](강조 인용자)

분발심을 품는 것조차 억압당하는, 욕망의 한도가 극도로 낮은 수준에 고착된 조선의 노동자 대중은 전시 동원 체제의 노무 동원을 통해 욕망의 한도를 높이고 분발심을 품을 기회를 갖게 된다. 조선은 작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고대에 고착되어, 경제적으로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의 고대적 침체의 상징인 유교 문화의 잔재에 허덕인다. 여기서 중국과 소중화인 조선은 위계를 지니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연결된 신체로서 표상된다. 조선은 중국에 달라붙어 그 애착과 고착에서 도저히 분리되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조선에게 중국은 정동적 대상이며, 일본의 전시동원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이 정동적 들러붙음을 어떤 식으로든 제거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조선의 정동적 대상이며 일본의 전시동원 체제는 이 정동적 지향성을 탈정동화하는 것에 온통 매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전시동원 체제 일본에게 가장 거대한 정동적 대상이자 탈정동의 대상이라는 모순적 지위를 얻는다. 이런 모순적 과정을 통해서 전시 동원 체제에서 중국은 조선의 모든 곳에 스며든 공기이자, 모든 폐풍의 온상인 기운이며, 조선의 정체의 원천으로 정동적으로 변용된다. 동시에 조선에서 중국은 전시 동원 체제의 모든 것이 매달려 있는 정동적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선에서 전시 동원 체제 일본의 모든 것은 중국이라는 대상을 향한 정동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43 오오노 켄이치(大野謙一), 위의 책, 29-30쪽.

전시 동원 체제에 이르면 조선을 중국의 파생물이나 혼종물로 보는 담론이 늘어난다. 소중화로서 조선을 보는 시선이나, 아시아적 정체성론 뿐 아니라, 조선 자체를 "지나적인 조선 문화"로 지나의 파생물이나 혼종물로 보는 역사관은 흥미롭다. 예를 들어 녹기연맹 일본 문화연구소원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이씨 조선"을 "지나적 조선 문화의 확립"시기로 규정한다.[44] 또 "이씨 조선"이 "민족 내에서 무수한 여진족을 동화시켜서 그 결과 지나 문화를 민족 생명의 골수(骨髓)로 체득하게 되었다."[45] 따라서 "이씨 조선의 정치정책의 기조는 지나 중심이었다. 신라가 반도를 통일했던 때 지나 민족의 힘을 빌고, 지나 문화의 힘을 빌려 그 사업을 완성했었다. 이후 고려는 출발점에서는 이러한 지나 중심을 명확하게 신라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갱신했다."[46] 나아가 "이씨 조선"은 "지나 민족국가에 명확한 지향성을 뚜렷하게 했다."[47]

모리타 요시오의 국체관과 내선일체관을 연구한 기유정에 따르면 내선일체 시기 모리타 요시오는 세계문화로서 제국 문화론을 주장했고 이는 당시 내선일

---

44 기유정은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를 사례로 재조 일본인의 제국적 주체 위치를 연구한 바 있다. 기유정에 따르면 모리타 요시오는"1910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약종업'을 했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군산에서 보낸 인물이다. 군산 공립 소학교와 경성 공립 중학교 졸업 후1927년 4월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했던 모리타는 이후 "경성제대 법문학부 사학과"에 진학해서 "조선사"를 전공하게 된다. 다나카 아키라(仲中明)에 따르면 당시 조선사 전공은 부친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녹기연맹에 가입한 후 조선사에 관한 저술을 남겼고『국사와 조선(國史と朝鮮』도 그 중 하나이다. 기유정,「일본 제국과 제국적주체의 정체성-『綠旗』(『錄人』) 속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국체론과 정체성 분석을 중심으로」,『일본학』35, 일본학연구소, 2012, 124쪽.
기유정의 연구는 주로 모리타 요시오의 조선사 연구에서 재조 일본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주로 규명하고 있다. 기유정의 논문에서는『국사와 조선(國史と朝鮮』이 1940년 출간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녹기연맹에서『今日の朝鮮問題 講座 第六卷-國史と朝鮮』(으로 발간된 것은 소화 14년, 즉 1939년이다. 여기서는 이 텍스트를 참고한다.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금일의 조선문제 강좌 제 6권-국사와 조선(今日の朝鮮問題 講座 第六卷-國史と朝鮮)』,『일제하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日帝下 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54권, 민족문제연구소(民族問題研究所), 한국학술정보, 2000.

45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위의 책, 495쪽.

46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위의 책, 497쪽.

47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위의 책, 497쪽.

체론을 둘러싼 순혈론과 혼혈론의 긴장과는 또 다른 계열을 구성한다. 이는 특히 재조 일본인으로서 모리타 요시오의 자기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정동의 측면에서 볼 때 모리타 요시오가 조선의 역사를 "지나 민족국가에 대한 지향성"의 역사로 설명하는 지점은 흥미롭다. "지나적 조선 문화"라는 규정은 그런 점에서 조선을 중국적인 것에 대한 지향성으로 재구성한 전시동원 체제의 중국의 정동화 과정의 또다른 사례라 할 만하다. 지나적 조선 문화라는 규정에서 조선적인 것은 역사적으로 고유성을 상실해왔으며 중국적인 것에 대한 지향성의 운동(정동성)과 구별할 수 없는 무엇이 된다.

조선적인 것은 중국적인 것을 향한 지향성의 운동으로 고유성이나 원본성을 찾을 수 없다. 중국적인 것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원본의 아우라를 상실한 채 가짜 중국으로 변용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영향, 중국에 대한 지향성 등 조선에서의 중국의 영향성을 강조하는 전시동원 체제 정책 담론에서 중국적인 것이 기운, 공기와 같이 지각조차 할 수 없이 조선에 스며들어 있는 하위 지각적인 것으로 변용된다. 즉 중국적인 것이 정동적인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동화 과정은 한편으로는 중국이 실체성을 상실한 채 전파매개물(온상, 폐풍 등)이라는 병리적 의미로 변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병리적 연결성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정동으로서 조선적인 것에 인식과 언어와 표상과 감각될 수 있는 것 저 너머에서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 이는 중국에 대한 지향성으로 서술되는 조선적인 것, 조선의 민족적인 것 역시 원본성과 고유성을 부정하는 온갖 담론적 체계에도 불구하고 말살되지 않는, 하위지각적인 힘이자, 잠재성으로 가짜의 표상들 사이를 감싸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이는 중국적인 것에 관한 당대 조선인의 감상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은 조선을 중국의 영향에서 떼어내고 아시아에서 중국이 지녔던 영도적 지위를 일본이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선전 정책을 펼쳤다. 예를 들어 중국이 맡았던 아시아의 지도적 지위를 이제는 일본이 맡게 되었다는 논의는 전형적이다. 김경재는 전시 하의 상해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논한다.

지나 문제는 무엇으로 수습할 것이요 그 장래는 어떻게 되고 일본이 지

고 있는 아세아의 지도적 지위란 어떤 점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했습니다.[48]

아시아의 미래를 중국이 견지할 수 없다는 일본 제국의 선전 서사에서는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서구에 의한 중국의 몰락과 중국의 타락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특히 열강이 점령한 상해와 상해 조계의 존재는 외부로는 열강에 의해, 내부로는 타락에 의해 분열되어 갈기갈기 찢긴 중국적인 것의 신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 표상으로 자주 사용된다. 실제로도 사상 통제에서 상해는 불순의 표지로, 풍속 통제에서 문란의 표지를 담지한 공간이 되었다. 중일 전쟁을 지나면서 일본의 통제 정책을 통해 중국은 과거의 중국(명/청), 몰락을 자초한 중국(아편전쟁), 분열된 중국(장개석의 중국/공산당의 중국/대동아 공영권의 포섭대상으로서 중국), 열강에 점령되어 갈기갈기 찢겨진 중국(상해/조계의 신체로 표상되는 중국의 국체) 등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분열된 중국적인 것의 신체는 중국을 진짜와 가짜가 한 몸에 분열적으로 공존하는 몸으로 인식/표상하도록 했다. 이런 표상 구조는 상해의 조계로 집중되고 조계로 표상되는 분열된 중국의 국체는 스파이라고 하는 개별 존재의 신체로 육화된다.

蔣介石이라 重慶에 앉어서 英, 米, 佛의 약간의 도움이 있다기로니 재정적 파탄을 막는 길이 없을 것이요 그 우에 中國 공산당이란 것이 있어 上海 일대에 蔣介石 지반을 빼앗을려고 佛祖界를 비롯하야 共同租界에도 다수한 사람이 잠입해서 지반 획득에 분주하다고 함니다. 國共合作이라고하나 그는 표면적 사실에 끈치고 이면에서는 일층 대립이 격화하고 있으니 지금의 정세로 보아서 공산당이 활약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租界란 금후 신생 中國에 있어 용인하지 못할 암종이외다.** 현재의 정세로만 보아도 上海에서 그 좁다란 蘇州河 하나를 경계로 하고 저편에 가면 **排日의 언동**이 잇슴니다. (…)

옛날의 中國으로서는 능히 참었다 하드라도 오날의 신생의 中國으로

48 김경재, 「戰時下의 上海」, 新上海호텔 金璟載, 『삼천리』, 12(3), 1940.03.01., 56쪽.

> 써는 **나의 몸을 파서 먹는 좀**을 그대로 언제까지나 둘 수는 없을 것이외다. 租界 문제의 요점은 이것일 것이요 이러니 저러니 계단적 문제가 있다드라도 그는 사건의 진행의 순서이요 요컨댄 문제는 租界의 전면적 회수일 것임니다. 上海는 東洋에 있어 가장 큰 국제 도시임니다. 그래서 서양인이 많으니 여기에 오면 언제나 이국의 정취가 농후함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국제 스파이**의 활약이 대단히 성황임니다.[49]

김경재의 글은 중일전쟁과 이차세계대전을 지나고 있던 조선에서 조선 지식인에게 중국이 어떤 분열적인 상으로 변형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1940년대 얼마 남지 않은 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인들의 글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글은 동아 신질서에 동의하는 논의를 구구절절 이어간다. 분열된 중국에 "암종과 같은 상해 조계", 암종 속에서 암약하는 스파이를 경계하는 논의는 전형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글에서 중국은 도저한 역사를 지닌 거대한 장소성을 잃지 않고 있다.

> 楊子江을 가라처 長江이라 하기도 하고 大江이라고도 함니다. 重慶, 宜昌에서 비롯하야 漢口, 武昌, 九江, 南京 등지를 거처 上海에 이르러서 黃海에 연결하니 그 長이 삼천이백리이요 하구의 하폭이 사십리라니 분명히 長江이요 大江이외다.[50]

김경재는 상해의 스파이를 염려하면서 동시에 삼국지 등 중국의 고사(故事)를 인용하며 길게 글을 이어가는 데 이런 방식은 전형적으로 중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즉 중국의 몰락을 한탄하고 일본의 동아 신질서를 추종하는 글에서조차도 중국은 고사(故事)의 원천이며 지식과 글쓰기, 말하기의 원천으로 강력하게 작동한다. 김경재 스스로도 이를 "양자강(楊子江)은 중국의 오천년간의 성쇠를 모조리 보고 모조리 드른 증거가 될 것이외다. 양자강(楊子江)은 천년전에도 흘넣고

49 위의 글, 56-57쪽.
50 김경재, 앞의 글, 59쪽.

어제도 흘느고 오날도 흘느고 있으며 그 강 안에는 벌서 2년간이나 직업을 찻는 노동자의 무리가 정신없이 흘넣가는 물을 드려다 보고 있읍니다."[51]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상해는 무엇보다 항일 투쟁의 거점이기에 언제나 상해에 관한 이야기에는 말해지지 않는 정치성이 작동한다. 또한 상해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며 정치적 역학의 상징이다. 동시에 상해는 중국의 암종이고 위장한 스파이들의 온상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거대한 강 양자강처럼 과거에도 미래에도 도도하게 흐른다. 여기서 강은 한편으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인간의 변덕스러운 역사에도 멈출 수 없는 흐름/힘이다. 전쟁(열강들의 각축)과 이를 뛰어넘는 자연의 힘의 대비가 1940년대 조선에서 중국을 둘러싼 정동 정치(힘들의 각축장)라 하겠다. 이로부터 10년이 조금 지나면 한국에서 중국은 상당히 다른 자연/물(Nature matter)로 환원되는데, 바로 비/인간 바다, 인해전술의 표상이다.

4 중국 정동 연구를 통한 정보 이론, 인종 과학 연구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전시동원 정책에서 중국적인 것이 사상의 원천에서 전파 매개적 신체성으로 변용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전시동원 정책의 변화가 당대 조선인의 인식, 감정, 정서 구조와 정동 정치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못했다. 전시 동원 정책에 동조한 행위자들의 저작에서도 일본 제국의 정책적 기조가 온전하게 관철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정동 정치가 이후 어떻게 지속되고 변형되는지 고찰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정동과 관련한 식민성의 유산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혀 이질적인 방향으로 변형된다고 보인다. 한국전쟁과 냉전 미국화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중국 정동은 미국의 영향에 강하게 휩싸인다.

식민 지배를 통해 중국과 전쟁 상태를 경험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식민성과 냉전이 교차하는 한국 특유의 인종주의 감각이 형성된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 대한 연결성을 상실하고 미국 중심의 반공 블록의 원

51 김경재, 위의 글, 60쪽.

격 통제 범위에 포섭되는 냉전의 정동 지리가 구성된다. 일본의 전시 동원 통제 속에서도 완전히 절멸할 수 없었던 중국적인 것의 의미, 특히 조선의 지적, 문화적 원천으로서 중국의 의미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거의 소멸한다. 즉 한국전쟁을 통해서 원천이자 근원으로서의 중국은 적어도 한국 사회의 의미, 감각, 표상 체계에서 사라졌다. 한국전쟁에 대한 여러 서사 특히 "인해전술" 담론과 표상은 냉전기 한국 특유의 중국을 둘러싼 정동 정치를 구축했다. 1·4 후퇴 서사를 비롯한 한국전쟁 서사와 냉전 서사에서 중국군의 이미지는 '인해전술'로 상징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떼지어 다니는 무시무시한 무리", "인간 기계"의 이미지로 점철되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중국이 문화와 지식의 원천이었던 것과 달리, 이런 서사는 중국을 가짜 중국, 반지성적, 반인간적 떼거리, 자율적 이성을 지니지 않은 기계의 의미로 변용했다.

이런 변용 과정은 흥미롭게도 19세기 이래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이민 노동자(쿨리)를 표상하던 인종차별주의와도 맞닿아 있고 이러한 서구의 인종주의적인 중국 표상은 냉전기 미국화를 통해 한국에도 유입되었다. 전시 동원 체제 막바지인 1943년 노무 동원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쿨리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집대성되는 과정도 흥미롭다.[52]

또 이와는 다른 궤적을 따라서 한국전쟁 시기 인해전술에 대한 담론과 표상은 19세기 미국과 유럽에서 형성된 쿨리에 대한 인종주의적 표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그간 지역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연결성을 지녔던 중국과 거의 완전하게 연결성을 상실하는 대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동떨어진 19세기 서구와의 원격적 연결 상태를 냉전기 내내 이어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인접함에도 연결 감각을 갖지 못하고 연결성을 상실한 경우는 중국만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와도 이러한 지역적 연결 감각은 냉전 시기를 거치며 모두 상실되었다. 즉 한국은 냉전기를 거치면서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리적, 문화적 연결감을 상실한 채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지고 공간적으로도 분리된

52 全田一, 『특수 노무자의 노무관리(特 勞務者の勞務管理)』, 후편, 「쿠리(苦力)」, 1943년, 山海堂,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54권, 민족문제연구소(民族問題研究所), 한국학술정보, 2000, 88권.

미국과 유럽과의 연결성을 강화해왔다. 냉전 섬으로서 한국의 현실과 감각은 이러한 정동 정치의 산물이다.

이런 식민성과 냉전의 역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의 전시 동원 정책에 의해 구체화 된 중국 정동과 인종화 된 '조선적인 것'의 함의가 최근 영어권 연구에서 그 역사적 맥락을 상실하고 한국 고유의 "종족적 민족주의"로 해석는 방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반일 감정을 감상주의 연구 맥락에서 규명한 흥미로운 연구인 리오 T.S. 칭의『안티-재팬: 탈식민 동아시아의 감정의 정치학』[53]의 경우도 그중 하나이다.『안티-재팬: 탈식민 동아시아의 감정의 정치학』은 동아시아의 감정의 정치를 미국, 중국, 타이완, 한국이라는 대륙 간 관계와 변동의 역학에서 고찰한 중요한 연구이다. 특히 이는 어펙트 연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 번역본은 "감정의 정치학"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제목은 "The Politics of Sentiment"로 감상주의의 정치이다. 최근 소수자 연구 기반 어펙트 연구(젠더·어펙트 연구)에서는 근대 초기 감상주의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54] 이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정동적 시간성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또 리사 로우의 저작『4대륙의 친밀성』이 잘 보여주듯이 이런 연구들은 개별 신체에서 발생한다고 여겨진 감정, 정서를 대륙들 사이의 권력관계로 규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55] 이러한 연구는 식민주의의 역사를 현재에 생생하게 작동하는 정동 정치로 규명한다.

리오 T.S. 칭은 주로 타이완을 사례로 중국, 미국, 일본 대륙과 섬을 가로지르는 감상주의와 식민성을 규명하고 타이완에서 이른바 '친일 감정'의 복합성을 정교하게 고찰한다. 이 책에서 한국은 타이완의 복잡성과 대비되는 견고한 반일 감정의 형성사로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이른바 감상주의의 정동 정치와 반일 감정의 역사성은 단순하게 다뤄진다. 이런 여러 전제

53 리오 T.S. 칭, 유정완 역,『안티 재팬: 탈식민 동아시아의 감정의 정치학』, 소명출판, 2023.

54 관련한 연구 동향과 연구사는 다음 책을 참조. Xine Yao, *Disaffected : The Cultural Politics of Unfeel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1.

55 Lisa Lowe, *The Intimacies of Four continent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5.

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리오 T.S. 칭의 논의는 감상주의와 감정의 정치학, 반일 감정 등을 대륙 간 역학 관계에서 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일 감정을 탈역사화하거나 과도하게 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리오 T.S. 칭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인 항일(resist Japan)과 반일(anti-Japan)의 구별은 문제적이다. 리오 T.S. 칭은 "항일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중국의 투쟁 노력과 그것의 성공, 특히 8년의 항일 전쟁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중국 본토와 중국어 사용권에서 광범하게 사용된다. 반일 감정은 전후 직후 시기에 등장한 명백한 전후 현상이다. 반일 감정은 새롭게 '해방된' 과거 식민지들, 예컨대 한국과 타이완에서 '민족/내이션' 통합을 위한 정치권력의 구성을 위해 동원되었다."[56]고 정의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리오 T.S. 칭이 정의하는 항일(resist Japan)과 반일(anti-Japan) 개념은 일본 제국의 통제 정책이 정치적인 저항인 반일 행위와 이와 구별되는 배일 행위를 규정하면서 사상과 풍속 통제를 상이하게 작동시키는 방식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저항으로서 반일과 일본을 배척하는 태도나 정서로서 배일의 구별은 일본 제국과 조선의 지식인 행위자들의 판단 사이에서도 각축전을 벌이며 해석을 달리했다. 항일과 배일이라는 서로 다른 규정을 통해 일본의 전시 동원 정책은 중국적인 것을 정동화하고 조선적인 것을 인종화 하면서 조선의 민족적인 것을 종족적 민족주의의 범주로 환원한다. 리오 T.S. 칭이 한국 민족주의의 종족적 민족주의적 특성이라고 해석하는 많은 요소(유교적 잔재와 이와 연결되는 가부장성 등)는 실은 일본 제국이 만들어낸 종족적 민족주의로서 조선 문화에 관한 규정을 반복한다. 또 리오 T.S. 칭의 논의에서는 타이완과 달리 한국의 반일 감정에 대해서는 중국적인 것과의 관계성의 변화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 살펴본 중국 정동의 역사에 대한 논의는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의 전지구적인 확산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식민화된 논의 방식과 탈역사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풍속 통제와 검열 연구를 정보 이론의 역사와 잠재성에 관한 인종학 형성사, 젠더화 된 기술사 연구로 재정립하는 기초 연구다. 본 연구

56 리오 T.S. 칭, 앞의 책, 31쪽.

는 중국이 정동화는 역사적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중국 정동이 중국에 대한 앎을 구성하고 동시에 조선적인 것, 조선의 민족 문화, 조선의 구습, 조선의 종족적 특성 등에 대한 앎을 구성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 정동이 특정한 지식을 생성하는 방식을 살펴보기도 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검열, 특히 풍속 통제를 억압의 기제나 체제로만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앎을 생성하고 재생산하는 지식 생성 기제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전파와 매개와 관련한 행위자, 장소, 기술, 조사 연구 방법과 그 집적체로서 특정한 앎의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검열, 풍속 통제의 기본 원리가 되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害スル虞アル)"에 대한 분류와 선별 색출, 통제[57]는 오늘날 젠더·어펙트 연구에서 논하는 잠재성에 대한 앎의 패러다임과 생명 정치적 위계 형성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검열 연구와 풍속 통제를 정보 이론의 역사로 살피며, 이 정보 이론의 역사가 잠재성에 대한 특유의 과학사이기도 하다는 점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검열 연구를 잠재성에 대한 불안을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총체적 앎의 형태로 생성한 한국 특유의 인종 과학 형성사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인종 과학 형성사는 생명 정치적 위계 형성의 역사에 관한 연구이자, 장소에 대한 인종화되고 젠더화된 지리를 규명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특정 장소와 지역을 전파매개적인 특성으로 규정하는 이런 방식은 정동 지리와 역사 연구, 질병 연구와 소수자 연구가 만나는 지점이다. 또한 전파와 매개와 관련한 기술을 이러한 인종 과학 형성사와 정동 지리 즉 젠더·어펙트 연구의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

57 풍속 경찰의 작용 범위와 대상은 1. 흥행 2.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害スル虞アル) 영업 3. 기타 풍속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害スル虞アル) 행위 4. 사행 행위이다. 이외에도 풍속 경찰 작용과는 업무 범위가 다른 외국인 관련 범위에서는 "염려가 있는 행위"라는 규정은 "기타 공안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者)"라는 규정으로, 보안경찰 업무 관련 규정에서는 "집회결사 및 대중(多衆) 운동, 기부금품 모집, 노동자 모집, 사냥(狩獵) 그리고 기타 공안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害スル虞アル)"라는 형태로 등장한다. 조선총독부 경찰관 강습소 편찬(朝鮮總督府 警察官 講習所 編纂), 『조선경찰법대의(朝鮮警察法 大意)』, 谷岡商店印刷部, 1926, 1-5쪽.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경재, 「戰時下의 上海전시하의 상해」, 新上海호텔 金璟載, 『삼천리』, 12(3), 1940.03.01., 56-61쪽.

오오노 켄이치(大野謙一), 『교육으로 본 조선의 장래(教育より見たる朝鮮の將來)』, 조선총독부 학무국장(朝鮮總督府 學務局長), 1943년,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39권, 민족문제연구소(民族問題研究所), 한국학술정보, 2000, 21-30쪽.

『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概要)』, 경무국 도서과(警務局 圖書課), 1937,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38권, 민족문제연구소(民族問題研究所), 한국학술정보, 2000.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54권, 민족문제연구소(民族問題研究所), 한국학술정보, 2000, 88권.

『朝鮮警察法 大意』, 朝鮮總督府 警察官 講習所 編纂, 谷岡商店印刷部, 1926.

「식민지 관료 경력도(植民地官僚経歴図)」, 『공문서로 본 「외지」와 「내지」-구식민지·점령지를 둘러싼 인적 환류(公文書に見る「外地」と「內地」-旧植民地·占領地をめぐる人的還流)』, 인터넷 아카이브. https://www.jacar.go.jp/glossary/gaichitonaichi/career/career.html?data＝247(최종검색일: 2024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 경찰관 강습소 편찬(朝鮮總督府 警察官 講習所 編纂), 『조선경찰법대의(朝鮮警察法 大意)』, 谷岡商店印刷部, 1926.

단행본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책세상, 2004, 1-511쪽.

_____,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 책세상, 2013, 1-410쪽.

리오 T.S. 칭, 유정완 역, 『안티 재팬: 탈식민 동아시아의 감정의 정치학』, 소명출판, 2023.

이토 마모루, 김미정 역, 『정동의 힘: 미디어와 공진하는 신체』, 아프꼼 총서3, 갈

무리, 2016, 1-320쪽.
Lisa Lowe, *The Intimacies of Four continent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5.
T. Reeser et al, T. Reeser (Ed.), *Routledge Companion to Gender and Affect Routledge*, New York; Routledge, 2023.
Xine Yao, *Disaffected:The Cultural Politics of Unfeel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1.

논문

기유정,「일본 제국과 제국적 주체의 정체성-『綠旗』(『錄人』) 속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국체론과 정체성 분석을 중심으로」,『일본학』 35호, 일본학연구소, 2012, 119-154쪽.
김성봉,「山上憶良의 貧窮問答歌論」,『일본어문학』 72호, 일본어문학회, 2016, 207-228쪽.
김정화·문한별,「『조선출판경찰월보』 출판검열 통계표에 드러난 출판 시장의 변동과 통제 양상」,『우리어문연구』 68호, 우리어문학회, 2020, 30-68쪽.
김찬,「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처벌의 문제」,『공익과 인권』 1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163-200쪽.
류진희,「식민지 검열장의 형성과 그 안의 밖-『朝鮮出版警察月報』에 있어 '支那'라는 메타 범주」,『대동문화연구』 72호, 대동문화연구원, 2010, 415-443쪽.
문한별,「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화 검열 표준과 특수성」,『한국근대문학연구』 24(1), 한국근대문학회, 2023, 173-199쪽.
박장효,「중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의 유튜브 확산에 대한 연구」,『한국콘텐츠학회』 23권 2호, 2023, 280-290쪽.
박헌호·손성준,「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외국문학연구』 38호, 외국문학연구소, 2010, 193-224쪽.
엄진주,「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중국 소설 검열 연구-蔣光慈 소설 〈압록강에서(鴨綠江上)〉를 중심으로」,『한중인문학연구』 61호, 한중인문학회, 2018,

53-75쪽.
우대형, 「일제하 사회경제사학과 白南雲」,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한국사회사학회 110호, 2016, 41-74쪽.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1892~1898)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60호, 한국학연구소, 2021, 9-35쪽.
이용재,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중국여행기와 제국주의적 글쓰기」, 『중국어문논역총간』 30호, 중국어문논역총간, 2012, 353-388쪽.
이혜령,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제국" 표상-『조선출판경찰월보』의 다섯 가지 통계표가 말해주는 것」, 『대동문화연구』 72호, 대동문화연구원, 2010, 489-533쪽.
정근식,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대동문화연구』 79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2, 7-43쪽.
정러징(鄭樂靜), 「관동대지진 중국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모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2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3, 37-76쪽.
정문상,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 인식의 궤적」, 『한국근대문학연구』 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 203-231쪽.
_____, 「냉전시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 『아시아문화연구』 13호,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7, 47-70쪽.
_____, 「中共'과 '中國' 사이에서-1950~1970년대 대중매체상의 중국 관계 논설을 통해 보는 한국인의 중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 57-90쪽.
정욜(KNP+), 김현구(iSHAP), 박광훈(나누리+), 호림(행성인(舊 동인련) HIV/AIDS 인권팀), 권미란(前 나누리+), 타리(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외 토론, 정리 터울, 「동성애인권운동과 HIV/AIDS」, 『친구사이』, 친구사이, 2015.04.01.
정주영, 「중국 청년의 민족주의,팬덤과 혐오의 공진(共振)」, 『중소연구』 46권 2호, 2022, 7-45쪽.
정진선·김원·박성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샤이닝니키」 한복 논란 및 반중정서 연구」, 『중국현대문학(中國現代文學)』 103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22, 209-246쪽.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 「일본의 배외주의와 혐한 및 혐중 정서」, 『성균차이나브리프』 10권 1호, 성균중국연구소, 2022, 108-114쪽.
Cait McKinney and Dylan Mulvin, “High-Touch Media: Caring Practices at the Deaf AIDS Information Center”, *Feminist Media Histories*, Vol. 9, No. 1, 2023, pp. 98–122, 김보영 역, 「하이 터치 미디어: 농인 에이즈 정보 센터에서의 돌봄 실천」, 『젠더스피어』, 이지행 편집, 산지니, 2024, 근간예정.
Cait McKinney and Dylan Mulvin, “Bugs: Rethinking the History of Computing, Communication”, *Culture and Critique*, 12(4), December 2019, pp. 476–498.

Abstract

Becoming Affect of ‘the Chinese’ and the Racialization of ‘the Joseon’ in the Wartime Mobilization System: a Study on China Affect

Kwon, Myoung-A

This study examined how the Chinese thing changes through Japan’s imperial policy and wartime mobilization policy while passing through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Chinese perception and feelings toward China, the problematique of Chinese affect as established at a somewhat different point. In the wartime mobilization system, the Chinese, Chinese, and Chinese things become the target group, population, and place of affective politics represented by the hate politics of the wartime mobiliz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hinese thing becomes a hotbed that inspires, attributes, and energy, spreads, infects, and creates the most problematic qualities, spirits, and so that Joseon becomes the equal ‘hwangmin’. The Chinese thing sticks to the Korean thing like a disease, spreads antipathy toward the Japanese empire like a poison, and is compared to a cancer cell that sickens the sacred body of the Japanese empire. The Chinese thing is a disease that survives even if you try to exterminate it, a virus that infects even if you breathe, and it is also air itself. In other words, the Chinese has a strong spread and is a medium that carries germs and viruses, negative effects and ideas, customs, qualities, and grit to Joseon. This propagation-mediated physicality is the closest characteristic to the concept we

call affect today.

Key words: Becoming Affect of ‘the Chinese’, the Racialization of ‘the Joseon’, Wartime Mobilization System, China Affect, Chinese perception, Anti-Chinese Sentiment, Chinese Affect, Anti-Japanese Attitude, Information Theory

논문제출 / 2024.03.15.
논문접수 / 2024.03.16.
게재확정 / 2024.04.05.